

중요업무의 계속은 오사카에서

본사의 재해에 대비한 업무계속 체계가 중요합니다

대규모 재해시에는 인프라 피해에 의한 도시기능 마비가 예상됩니다.

동일본대지진의 수도권에 대한 영향(예)



출처: 「2012년 경찰 백서」 (경찰청)

약 500만명의
귀가곤란자가 발생

약 1개월간의
계획정전을 실시



©YNS/ PIXTA

수도권 직하지진에 의한 인프라의 피해 예상(예)

전력

약 50%가 정전
최악의 경우
1주일 이상 회복 불가능

통신

1일 이상
불통상황이 이어짐

수도

약 50%가 단수
약 10%는
하수도 사용 불가능

철도

1주일~1개월 정도
운행불가능 가능성

도로

[주요도로]
개통하는데 적어도1~2일
[일반도로]
극심한 교통체증이 수 주일간 계속

연료

경유, 가솔린, 등유가
말단까지 구입하기는 곤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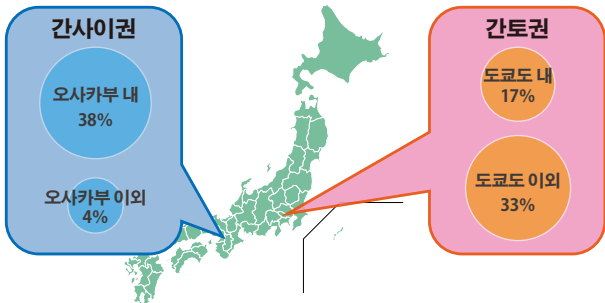
※출전 수도권직하지진대책 WG 최종보고(2013.12)

귀사의 BCP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까?

본사와 별도의 지역에서 중요업무를 계속(백업)할 수 있도록
평상시부터 체계를 갖춰둘 필요가 있습니다!

대기업의 약 40%가 백업 거점으로 오사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※

일시적인 백업거점으로서 상정하고 있는 지역



※실문조사 개요

조사기간: 2017년 11월 17일~12월 8일
조사대상: 도쿄도 내에 본사를 가진 도소 1부 상장기업(1,109사)

조사방법: 조사표 배부, 회수는 우송
실문은 복수회답 유효회답수: 135사(12.2%)

오사카에 백업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의 예

- AIG재팬 홀딩스 주식회사 (순서부등)
- N T T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
- 코스모 에너지 홀딩스 주식회사
- 시미즈건설주식회사
- 도쿄해상 니치도화재보험주식회사
- 닛신식품 홀딩스 주식회사
- 일본항공주식회사 등

웹사이트상에서,오사카에 백업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

<https://www.city.osaka.lg.jp/fukushutosuishin/page/0000462730.html>



오사카부·오사카시 부수도추진국
TEL:06-6208-8987



※웹사이트상에서 자동번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오사카에 백업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의 예

AIG재팬 홀딩스 주식회사

일본에서의 사업전개 강화에 맞춰 그룹으로서의 일본법인 본사기능을 포함한 도쿄에 이은 제 2의 거점 오피스를 오사카에 설치하여 재해시의 사업계속 체제를 강화.

로버트 노던 대표이사 사장 겸 CEO의 강화

「오사카의 본사기능을 포함한 제 2거점 신설에 대하여」에서 (2016.2 제 2회 부수도추진본부회의)

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도쿄에 두었던 본사기능을 일시적으로 오사카로 이전하였습니다. 당시에 후쿠시마에서의 원전사고 수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또한 인프라상의 우려도 고려하여 오사카에 본사 기능을 뒀으로써 일본 각지의 오퍼레이션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
본사기능을 도쿄에서 오사카로 옮기기까지 당시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.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.

왜 오사카냐 하면, 해외로부터의 공항이나 항만에의 접근 편리성에 있어 오사카는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입니다. 더불어 오사카에서 일본 각지로의 교통편이 우수하고 스트레스 없이 선박으로도 전차로도 자동차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지금까지도 오사카라는 거점이 서일본을 통괄해 왔습니다. 그 상황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보다 많은 상급 관리직을 오사카에 배치하고 또한 오사카의 거점에 보다 높은 스킬을 부여하여 필요성을 느끼면 오사카 거점이 일본 그리고 미국 본사를 대신하여 기능하는 체제를 지향해 갈 것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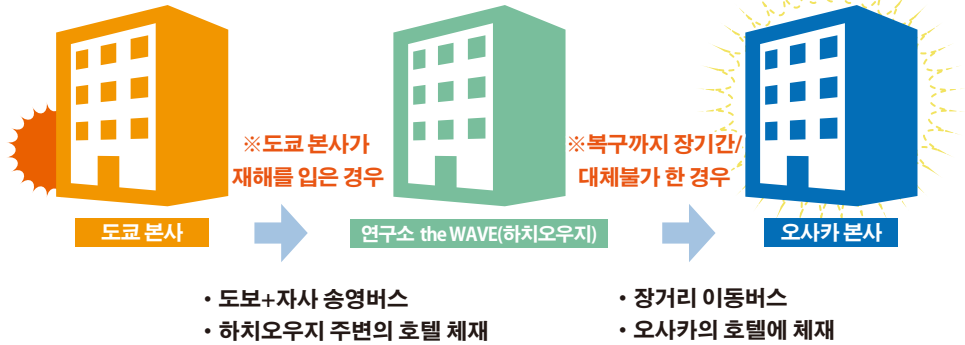
닛신식품 홀딩스 주식회사

하치오우지에 있는 연구소에서의 업무 백업이 첫번째 플랜이지만 정전 등으로 대체불가능한 경우 서플라이 체인을 발휘할 부문을 오사카 본사로 이전.

재난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재해대책본부를 발족시켜 6시간을 목표로 기능 이전의 필요성을 판단, 후보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할 곳을 결정한다.

재해지에서의 계속은 사원의 부담이 크므로 오사카에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. (이동수단, 숙박장소 등의 사전확보)

【서플라이 체인관리부문의 업무계속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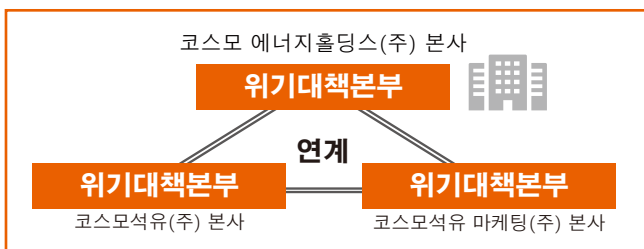
코스모 에너지홀딩스 주식회사

재해시에는 석유제품의 공급에 관한 그룹 각사에서 위기대책본부를 설치하여 BCP를 발동.

본사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코스모석유(주) 사카이제유소 및 코스모석유 마케팅(주) 간사이 지점에 임시 위기대책본부를 발족시켜 석유제품의 공급에 관한 본사권한을 부여.

오사카에 거점이 없는 코스모 에너지홀딩스(주)의 시스템 관리·홍보기능은 사카이 제유소로 이관.

도쿄 본사에서의 BCP 조직체제



오사카에서의 BCP조직체제(본사기능 상실시 등)

